

조장희 소장



“저희 연구소의 연구과제는 바로 살아 있는 사람의 뇌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직 임상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 성능이 확실히 입증된 PET-MRI가 살아 있는 사람의 뇌를 직접 눈으로 보며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대를 잘 부응해 주고 있지요”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의 석학교수와 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장희 박사. 그는 명실상부 세계가 인정하는 뇌영상 분야의 권위자이다.

“이런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우선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가천의대 역시 이 연구를 세우기 앞서 선뜻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학, 병원이 감당하기에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가천길재단 이길녀 회장님의 결단으로 마침내 뇌과학연구소가 설립되고,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장희 소장은 뇌과학연구소 설립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이 되려면 교수와 학생들도 우수해야 하겠지만 이런 연구소가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다.

“21세기를 흔히 BT 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뇌과학 분야는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정점에서 있지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뇌과학 분야에 엄청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후원 역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남가주대학에선 한 독자가 2억 달러의 기금을 뇌과학 연구에 써달라

며 기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조 소장은 우리의 BT 분야가 세계적인 수준이고 인력 또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으나 이 분야의 연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부나 사회의 지원이 외국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안타까워한다.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뇌과학 가운데 지능(인지) 부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질병으로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스트로크와 같은 퇴행성질환이지요. 무엇보다도 저희 연구소에서 뇌영상을 통해 세계 최초로 파킨슨 환자의 병변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럽고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살아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그런 병변을 직접 관찰한 일이 없었지요. 바로 저희 연구소의 축적된 지식과 7.0 테슬라의 고자장 MRI가 저희들의 이런 흥미를 충족시켜 주고, 뛰어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조 소장은 “우리 연구소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PET-MRI 시스템 개발은 미래 뇌과학 분야에서의 수익창출은 물론 나아가 인류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뇌과학연구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고, 독일 지멘스와 초고자장 MRI 공동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7.0 테슬라의 초고자장 MRI 장비도 입과 초고해상도의 PET 시스템 설치 등 가천길재단으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을 맺었다. (취재 김성환) **KHA**